

<참관기>

## 동남아시아 영화, 동남아시아 사회: 2024 부산국제영화제 리뷰

부 경 환\*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2024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부산 영화의전당과 그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라는 명성답게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의 수준 높은 동남아시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다. 국내의 여타 영화제나 관련 행사에서도 동남아시아 영화를 접할 수 있지만, 영화제 자체의 규모와 위상은 차치하더라도 초청되는 동남아시아 작품의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그해에 작품성을 인정받거나 화제를 불러일으킨 동남아시아 영화 상당수가 한데 모이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살펴보는 것은 동남아시아 영화계에 대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은 지난 두 차례의 리뷰(부경환 2021, 2023)와 마찬가지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램 노트를 작성하고 관객과의 대화(GV, Guest Visit)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boo@snu.ac.kr

&lt;표 1&gt;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동남아시아 초청작 목록

섹션	제목	감독	국가)
폐막작	영혼의 여행(Spirit World)	에릭 쿠(Eric Khoo)	싱가포르
아이콘	판토스미아(Phantomia)	라브 디아즈(Lav Diaz)	필리핀
	폴포트와의 조우 (Meeting with Pol Pot)	리티 판(Rithy Panh)	캄보디아
지석	마더랜드(Motherland)	브리안테 멘도사 (Brillante Mendoza)	필리핀
아시아 영화의 창	돈 크라이 버터플라이 (Don't Cry, Butterfly)	즈엉 지에우 링 (Duong Dieu Linh)	베트남
	백의창구 (白衣蒼狗, Mongrel)	장웨이량(Chiang Wei Liang), 인요우차오(Yin You Qiao)	싱가포르
	비엠투 남(Viet and Nam)	쯔영밍궤(Truong Minh Quy)	베트남
	새벽(Regretfully at Dawn)	시와룻 콩사쿰 (Sivaroj Kongsakul)	태국
	악어의 눈물 (Crocodile Tears)	뚝뵐 탐뵐볼론 (Tumpal Tampubolon)	인도네시아
	조용한 경청(The Hearing)	로렌스 파하르도 (Lawrence Fajardo)	필리핀
	피어스(Pierce)	넬리샤 로우(Nelicia Low)	싱가포르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How to Make Millions Before Grandma Dies)	팻 분니티팻(Pat Boonitipat)	태국
뉴 커런츠	생존자의 땅 (Tale of the Land)	루루 헨드라(Loeloe Hendra)	인도네시아
	침묵의 외침 (MA - Cry of Silence)	떼 모 나잉(The Maw Naing)	미얀마
와이드앵글 - 아시아 단편 경쟁	1+2 폭탄세일(Threefor100)	세드릭 라바디아 (Cedrick Labadia)	필리핀
	조용한 마을(Suintrah)	아예샤 알마 알메라 (Ayesha Alma Almera)	인도네시아
	해변의 먼지(Shoredust)	P. R. 모넨실로 파틴돌 (P. R. Monencillo Patindol)	필리핀
특별기획 프로그램	호랑이 소녀(Tiger Stripes) <sup>2)</sup>	아만다 넬 유 (Amanda Nell Eu)	말레이시아

출처: 부산국제영화제 웹사이트(www.biff.kr)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리

## 동남아시아 초청작 개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은 63개국 224편이다(부산국제영화제 2024: 2).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장편 15편과 단편 3편 등 모두 18편이다(<표 1> 참조). 국가별로는 필리핀 5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각 3편, 태국과 베트남 각 2편, 그리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각 1편이다. 초청작 수로만 따지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영화가 항상 1, 2위를 다했던 최근의 경향과 달리 필리핀 영화가 가장 많이 초청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번 동남아시아 초청작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작품은 싱가포르 에릭 쿠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최초로 동남아시아 영화가 폐막작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개·폐막작은 수많은 초청 인사와 관객이 참석하는 개·폐막식에서 상영한다는 점과 더불어 그해 영화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주목도와 화제성이 높은 만큼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건도 많고 까다로운 편이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영화가 쌓아 올린 성취를 생각해 보면 이상하리만큼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작과는 연이 닿지 않았는데 드디어 영화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기회가 온 것이다.

폐막작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꼽히는 리티 판,

- 
- 1) 국가 정보가 둘 이상 표기된 경우 주 제작사 혹은 감독의 국적, 극의 배경 및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의 대표 국가 하나를 표기했다.
  - 2) <호랑이 소녀>는 2023년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어 국내에서 처음 상영된 바 있으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10대의 마음, 10대의 영화’ 섹션에 초청되었다.
  - 3)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공동제작

라브 디아즈, 브리안테 멘도사 감독의 신작이 나란히 초청되어 팬들의 기대 속에 부산을 찾았다. 칸 영화제 황금카메라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받은 <백의창구>, 각각 칸과 베니스에서 비평가주간 대상을 수상한 <호랑이 소녀>와 <돈 크라이 버터플라이>, 그밖에 칸, 토론토, 산세바스티안,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 초청되었던 <비엣과 남>, <악어의 눈물>, <새벽>, <피어스>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동남아시아 영화도 다수 선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2024년 상반기 태국 극장가에서 가장 큰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화제작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과 같이 대중성 높은 영화도 초청되어 다양한 관객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라인업이 구성되었다.

초청작 면면을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의 신작, 내로라하는 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수상한 화제작,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신예 감독의 데뷔작 등이 두루 포진해 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동남아시아 사회의 이슈를 다룬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영화라는 매체는 현실을 반영하며, 더욱이 영화제에 초청되는 작품이라면 당대를 예리하고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동남아시아 초청작 중에는 이러한 사회성 짙은 작품이 유독 많은 편이었으며, 따라서 이번 리뷰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비극적 현대사의 끝없는 굴레

아이콘과 지식 섹션에 초청된 세 작품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 현대사의 비극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폴포트와의 조우>는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기자

엘리자베스 베커(Elizabeth Becker)의 논픽션 *When the War Was Over* (1986)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1978년 말, 베커는 언론인 리처드 더드먼(Richard Dudman),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학자 맬컴 콜드웰(Malcolm Caldwell)과 함께 서구인으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민주캄푸치아(캄보디아)를 방문하고 크메르루주(Khmer Rouge) 지도자 폴포트(Pol Pot)를 인터뷰했는데, 이를 각색하여 영화화한 것이다. 필모그래피 대부분을 크메르루주 시기의 아픔을 그리는데 할애한 리터 판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언론인의 눈과 폴포트의 입을 통해 크메르루주가 추구하고자 했던 혁명과 이상(理想) 사회 건설의 허상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민주캄푸치아의 실상을 목도한 이후 점차 입장이 달라지는 세 인물의 모습을 통해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시대극을 넘어 전지구적 보편성과 동시대적 시의성을 확보한다.

브리안테 멘도사 감독의 <마더랜드>는 필리핀 민다나오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을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테러 용의자 체포 작전 수행 도중 경찰 특수부대 수십 명이 희생당한 마마사파노(Mamasapano) 사건이 중심 소재이다. 극에서는 이슬람 반군 세력이 철저히 타자화되어 있으며, 할리우드의 애국주의 영화와 같은 서사 전개와 연출 방식이 드러난다. 필리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배경 정보가 부족한 관객에게는 자칫 잘못된 선입견을 제공할 수도 있는 대목이며, 반대로 필리핀에 대해 잘 아는 관객이라면 감독이 필리핀 정부의 시각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멘도사 감독의 전작 <모로>(Moro, 2023)와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은 모로족을 극의 배경으로 삼아 계속되는 유혈 충돌 속에 한 가정의 대를 이어 겪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상반되어 보이는 두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역사적, 사회적 뒤틀림으로 인해 결국 피해받고 고통받는 것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이 적대적 대결 구도와 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슬로우 시네마(slow cinema)를 대표하는 작가 라브 디아즈 감독의 <판토스미아>는 퇴역한 군 부사관 자발라(Zabala)가 과거 군복무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후각적 환각 현상인 환후(幻嗅)를 겪는 이야기로, 동명의 실존 인물의 기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부대 근무를 자처하지만, 어느 외딴섬의 유형지에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 속 회상 장면과 정황 정보를 놓고 추정했을 때 자발라가 특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사건은 1970년대 기독교 극단주의 집단 일라가(Ilaga)가 모로 무슬림 공동체를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적 만행으로 짐작된다. 또한 4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종교적 충돌 외에도 부패한 정부와 지방 토호 세력, 개발 논리에 따른 강제 이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 등 필리핀 사회에 만연한 갖가지 구조적 병폐와 폭력의 양상이 그려진다. <부서지는 파도>(When the Waves are Gone, 2022)와 <호수의 깊은 진실>(Essential Truths of the Lake, 2023) 연작을 통해 필리핀 사회의 모순과 폭력을 고발한 디아즈 감독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근원적 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 스크린으로 마주하는 추악한 현실의 고통

<조용한 경청>과 <침묵의 외침>은 개인적으로 이번 상영작 가운데 가장 보기 힘들었던 작품이다. 영화가 지루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필리핀과 미얀마 사회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결말마저 그리 희망적

이지 못하다.

<조용한 경청>은 마을의 신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청각장애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카메라가 아이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사운드를 소거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의 감각을 관객이 최대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한 연출 방식과 주연을 맡은 아역배우의 열연이 어우러져 감정이 극대화되는 작품이다. 피해자 가족은 신부가 지닌 종교적, 사회적으로 월등한 권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구조적 불리함 속에 이웃 주민들의 외면과 방해까지 더해져 더욱 곤경에 처하지만, 결국 온갖 난관을 뚫고 가해 신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까지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이는 수어 통역을 맡은 선생님인데, 알고 보면 그 역시 집안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이다. ‘말’하지 못 하지만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아이와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선생님의 이중적 대비와 아이러니는 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제작진은 이 영화가 실제 특정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화는 권선징악의 후련한 결말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고 재판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채 끝을 맺는다. 피해자 가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과정도 절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착잡하고 씩씩한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지 않는 이유이다.

오영정 작가가 극을 쓰고 공동제작자로 참여한 <침묵의 외침>은 미얀마의 한 봉제 공장에서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 가혹한 노동 조건과 임금 체불이 극에 달하자 파업을 일으키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나뉘고, 지방 시골에서 상경한 주인공은 양자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다. 영화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가해나 위협 요소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끝없이 연대하고 저항하는 여공들의 모습이 실제 미얀마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투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들이 벌이는 일은 정녕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까. 8888 항쟁의 실패한 유산을 반영하는 듯한 서브 캐릭터의 등장과 참담함으로 가득한 마지막 장면은 미얀마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기에 더욱 슬프게 느껴진다.

### 동남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호랑이 소녀>와 <돈 크라이 버터플라이>는 국적과 소재는 다르지만 여러모로 공통분모가 많은 작품이다. 우선 젊은 여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각각 칸과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을 수상한 프로필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때로는 코믹하기까지 한 재기발랄한 연출 분위기 속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회 내 여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지닌다.

<호랑이 소녀>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래 집단의 질서 속에서 2차 성장을 겪는 10대 소녀 자판(Jafan)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장물의 흔한 소재를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자 장점인데, 아만다 넬 유 감독은 말레이시아 전통 설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변신 모티브를 2차 성장으로 변해가는 여성의 몸에 대입함으로써 관객에게 시각적, 인식적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B급 감성의 연출 장면과 10대에게 인기 많은 숏폼(short-form) 동영상 화면의 과감한 사용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에 경쾌함을 더하지만,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판이 자신에게 마음을 연 친구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쉽게 ‘괴물’ 혹은 ‘비정상’이라 낙인찍는 대상이 실은 대중의 시선에 의해 빚어진 구성물은 아닌지 성찰하게 한다.

<돈 크라이 버터플라이>는 평범한 한 베트남 가정의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다. 바람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민간요법과 주술적 비기를 동원하는 중년 여성과 해외 유학을 기회 삼아 갑갑한 집안과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젊은 딸 사이의 대비되는 모습이 섬세한 현실 세계는 물론 초현실적 판타지와 뒤섞여 펼쳐진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대개 영화에서도 늘 조연에 머물러 있는 중년 여성에게 주체성을 부여하고 주연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던 한-싱가포르 합작 영화 <이즘마>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시각과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 동남아시아 영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 외에도 여러 작품이 동남아시아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백의 창구>는 대만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태국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그렸고,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비엣과 남>은 베트남 전쟁의 아픈 유산을 은유적이고 미학적으로 표현했다. 인도네시아 영화 <생존자의 땅>은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자바 태생의 루루 헨드라 감독이 어린 시절 깔리만판으로 이주하면서 겪었던 ‘타자’(다약족)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이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이슈를 극의 중심에 놓지 않더라도 각자의 특색과 매력을 잘 살린 작품도 많았다. 10여 년 만에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 시와룻콩사꾼 감독의 <새벽>은 빼어난 감수성과 서정성이 돋보였으며,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단편 영화에 수여하는 선재상을 수상한 뚝뻔 뚝뻔 감독의 <악어의 눈물>은 장편 데뷔작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였다.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은 대중 상업영화로서 예상되는 뻘한 결말과 신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관계와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보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동남아시아 영화이지만 세계 영화계에서는 꾸준히 약진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뉴 커런츠 섹션에서 <침묵의 외침>이 뉴 커런츠 상을, <생존자의 땅>이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 상을 수상했다. 뉴 커런츠는 부분 경쟁 영화제를 표방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섹션으로 신인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아도 칸 영화제의 황금카메라상, 칸과 베니스의 비평가주간과 같이 신인 감독을 대상으로 한 부문에서 최근 동남아시아 작품이 연이어 수상 소식을 전해오며 따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물론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정부의 저조한 지원, 부족한 전문인력과 교육·훈련 인프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색깔을 지닌 젊은 영화인이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내에서도 이들이 만들어낼 우수한 동남아시아 영화를 접할 통로가 확대되고 소비층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부경환. 2021. “동남아시아 영화의 오늘: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영화와 영화인.” 『동남아시아연구』 31(4): 295-304.
- \_\_\_\_\_. 2023. “동남아시아 영화의 잠재력과 과제: 2022 및 2023 부산국제영화제 리뷰.” 『동남아시아연구』 33(4): 399-410.
- 부산국제영화제. 2024.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보도자료.” 부산국제영화제 웹사이트. <https://www.biff.kr/>

